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 : 고린도후서 2:1-17

요절 : 고린도후서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향기입니다. 꽃은 특유의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인하여 수정을 하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어 어떤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듭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1. 많은 눈물의 목자(1-11)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당분간 다시는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수록 지난번 심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1). 자기가 쫓겨난 것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여 고린도교인들의 잘못을 엄단한다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강압적으로 주관하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큰 기쁨이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슬픔과 근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1:23-24).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생각할 때 무거운 짐이 마음을 누르듯이 압박을 받고 걱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문제가 점점 커져서 다른 양들도 실족하면 어쩌나? 점점 죽어가는 고린도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때 좀 더 깊이 도왔더라면, 그때 미리 말해주고 경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과 탄식도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흘러내린 눈물 때문에 글자가 번져 편지쓰기를 멈추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며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아버지는 못한 자식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듯이, 문제 많은 자녀일

수록 더 아픈 마음으로 돌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 양들을 깊이 사랑하다보면, 그 사랑이 때로는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며 오해하고 반발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곧 처음 방문 때 그들을 엄히 책망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자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19절을 보면 그가 3년 동안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상한 목자의 심정이자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삼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역사(행19:11-12, 17-20) 이면에는 이러한 바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 영적 성장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눈물이 양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저희들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한사람을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넘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탁을 합니까?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기

‘근심하게 한 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OUT’을 외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앞장서서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 과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자신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신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넘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의 경우, 그의 죄를 떠올리며 그를 은근히 멀리하기 쉽습니다. 거리감을 두면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교회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범죄한 후에 회개한 사람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리감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정죄의식과 자의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수술은 잘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이런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12-17)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침 드로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대학에 갔을 때 그곳의 대학생들이 바울에게 “드로아”, “드로아”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바울은 여세를 몰아 온 힘을 쏟아 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노심초사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양들이 내 편지를 읽고 완전히 힘들어져버린 것은 아닐까? 디도에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7:5절을 보면 이때 바울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몸까지 아팠겠습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환난이나 상처도 능히 견디는 아이언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찢리면 아프고 맞으면 부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이튿날 떠나고자 밤새 형제들을 권면하다가 유드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살리고 또 날이 새기까지 권면하고 바로 배를 타고 급히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뒤로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고린도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일년 육개월을 머물며 공을 들인 교회였습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어 언제 와해될 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교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짓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자격도 없는 거짓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교회에 심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고 그후로 더욱 노심초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고린도역사는 바울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14)

1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트리암뷰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나 군인들이 전쟁에서 큰 무공을 세우고 승리했을 때 개선행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개선행렬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참여합니다.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에게 패배한 상대편 장수와 포로들이 줄줄이 묶여서 그 뒤를 따릅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제들이 뒤따르며 아름다운 향을 피우기 때문에 개선행렬에는 향기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들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서서 포로삼아 개선행렬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화염과 분노를 말하고 항공모함이나 전폭기를 배치해서 상대방을 압박해 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적과 원수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킴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소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빵을 맞으시고 비방과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흉악한 범죄자로 벌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맛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고 참아주고 감당해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양을 돕는 목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배의 권위로 돕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과 섬김으로 도울 때 목자의 사랑을 알고 감동하여 변화됩니다. 바울도 사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급하고 낮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배척할 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것을 바울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섬긴 겁니다. 권위를 버리고 낮아지고 자존심과 감정을 죽이고 온유와 사랑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속이 썩고 죄 지은 사람처럼 용서를 받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자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승리감을 맛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때 실패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느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언제나 승리감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b).” 죄와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시므로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15)

15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도 있지만 해악을 주는 지식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식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참된 희망을 주고 영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꾸준한 사귄을 가질 때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냄새로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활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고 온 사람은 아무리 페브리지를 뿌려도 고기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평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그 냄새가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강하게 났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흙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라고 묻자, “그것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진흙이 말하기를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동안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진흙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론의 꽃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한 줌 진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들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속에서 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양들을 위한 목자의 많은 눈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위한 겸손과 섬김 희생, 용서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양들 때문에 때로 금식도 하며 힘들어하고 마음이 편치 못한 목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똑 같은 장미이지만 살아 있는 장미꽃에서는 향기가 나고, 조화는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과 명품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바로 이 향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김세진 목자를 보며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그의 친구들은 이곳을 ‘세진이가 다니는 교회’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동안 김경동, 홍다혜, 김동범, 이정훈, 김신영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를 더욱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셋째,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16)

16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마치 청국장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게는 맛있는 천국장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호흡조차 힘들게 하는 똥국장의 냄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어떤 이들은 치를 떨며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목자가 희생적으로 양들을 섬기면, 어떤 이들은 감동을 먹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목자생활이 저런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양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복음전파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바울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치는 중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장사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다한 세상 지식과 사상을 섞어서 전함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잡한 말씀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혼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의 사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온갖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아 잘못하면 세상의 죄악된 냄새가 베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베이기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수양회를 통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고 품격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7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